

일본

아리스타, 엔화 영향으로 매출 유지

2008년 아리스타 농약매출이 엔화와 다른 화폐 환율의 영향으로 0.9% 하락한 1,200억 엔(12억불)을 나타냈다. 고정환율(CER)로 보았을 때 이익은 9% 증가하였다. 의약·동물약품을 포함한 총 매출 1,340억엔 중에서 농약 매출은 91%를 차지하였다.

제초제는 매출이 462억엔을 기록하여 8% (고정환율 18.4%)대의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분야였다. 글리포세이트의 전 세계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리스타의 Everest (flucarbazone) 판매는 북미에서, Select (clethodim)은 남미와 북미에서 높게 나타났다.

살충제는 전년 대비 18.9%(고정환율 13.2%) 하락한 전체 매출 중 23.4% 점유하여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목화재배 감소와 유럽에서 카보퓨란, 동남아에서 칼탐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체매출의 13.6%를 차지한 살균제는 2.8%(실질 11.9%)의 성장을 이루었다. 북미와 유럽, 일본에서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기타 제품군은 6.4%(고정환율 20.3%)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Midas(iodomethane) 토양훈증제'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GBM(Grupo Bioquimico Meicano)사와 합병을 통한 남미의 성장조정제 제품군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타는 2007년말 GBM을 인수한 바 있다. 미국 EPA는 2008년 10월 Midas의 등록을 무기한으로 갱신해주었다.

남미시장은 전년 대비 11.5%(고정환율 21.8%) 상승하여, 전체매출의 25.1%를 차지

하면서 북미시장을 제치고 아리스타의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시즌 초기 브라질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글리포세이트의 높아진 가격이 소비자로서 하여금 제초제 Select(Clethodim)를 구매토록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몬산토의 라운드업(glyphosate)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은 아리스타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아리스타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북미지역(호주, 뉴질랜드 포함)은 매출이 1.6%(고정환율 16.3%) 상승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곡물류와 원예작물에서 농약 수요가 많아져 Everest와 Select가 많이 소비되었다. 하지만, 목화재배의 감소, 2008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잔디 및 관상용 시장이 감소되어 매출이 줄기도 했다. GMB와의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멕시코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세 번째 큰 시장인 일본과 아태지역은 2007년을 넘어 10.1%(고정환율 2.6%)의 감소를 보였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칼탐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큰 요인이었다.

아리스타는 Volcano사와의 합병도 끝냄으로써 남아프리카에서도 호황기를 맞이하였으나 서아프리카(Burkina, Mali 등) 목화시장에서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아리스타는 2008년 10월 이래 농업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9년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고 환율변동과 신용위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듀폰, 미국서 살충제 개발 공로상 받아

듀폰이 Rynaxypyr(chlorantraniliprole)와 Cyazypyr(cyantraniliprole) 두 제품을 개발하여 '살충제 개발' 분야에서 미국화학회상을 수상하였다. George Lahm은 식품농화학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Kenneth A Spencer award를 수상하였다.

듀폰은 2007년에 Rynaxypyr를 시장에 내놓았고 올해 1억5천만불을, 2011년까지 연매출 3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2015년 사이에는 Cyazypyr를 출시할 예정이다.

2008스페인 농약시장, 14.2% 성장

스페인 작물보호협회(AEPLA)가 2008년도 스페인 농약시장이 전년대비 14.2% 증가한 6억4천9백유로(8억8천2백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수량 역시 2.1% 상승하여 94,549톤을 기록하였다. 4/4분기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Andalusia 지역에서의 매출이 1/3을 기록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제초제는 전체매출의 1/4 이상인 2억5천 유로를 기록하였고 메이저급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곡류와 옥수수의 면적이 증가되어 제초제 수요가 촉진되었다. 몇몇 제품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을 폭등시켰으며, 여전히 제초제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량은 5.2% 감소하였다.

살균제는 기후에 영향을 받아 13.9% 상승하였다. 2008년 지속된 강우로 인하여 노균병과 흰가루병, 회색곰팡이병을 방제하는 약제의 판매가 증가되었다. 수량 역시 1.3% 증가하였다.

살충제는 매출과 수량이 각각 1억4천 유로와 15,557톤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EU의 농약 성분에 대한 재검토는 살충제 사용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 시켰다. 특히, 감귤류와 올리브에 대한 피레스로이드계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살비제(acaricide)와 살달팽이류제(molluscicides)의 판매는 각각 15% 증가하였고 살선충제(nematicide)의 매출은 수량이 21% 증가했음에도 감소하였다.

시장은 2007년 5.5% 이후 상승 흐름을 타며 200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EU 농업정책의 변화와 높은 생산비, 살균제 가격하락 등에 의해 스페인 시장은 세계 8위 시장자리를 내놓았다.

스페인 작물보호협회는 내년에도 농약안전사용 대책을 발전시키고, EU의 지속적인 검토키준 개정에 따른 농약등록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스페인

미국, 콩 재배면적 증가

미 농무부는 지난 3월 올해 미국의 대두 재배면적이 7천6백만에이커(3천80만ha) 다다를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옥수수 재배 면적은 2년 연속 하락하였지만 1949년 이후세 번째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

대두 공급 및 옥수수와 비교하여 낮은 생산비용이 농민으로 하여금 금년에 대두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캔사스 지역으로 6.1% 증가한 3백50만에이커 다 다르다. Arkansas, Iowa, Mississippi, Nebrask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와 Ohio 지역에서 대두 재배면적이 10만에이커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 옥수수 면적은 약 1.2%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보다 대두 가격이 하락되고 불안정한 생산비용이 원인이 되어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orth Dakota 와 Colorado 지역이 가장 크게 감소되었는데 각각 25만에이커와 20



미국

만에이커 면적이 줄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alifornia, Iowa, Michigan, Minnesota, Pennsylvania와 Texas 지역에서는 10만에이커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2008년 6천6백10만에이커 였으나 금년에는 면적이 6천6백30만에이커에 다다를 전망이다.

면화는 7% 축소된 8백80만에이커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983년 이후 최고로 낮았다. 밭 면화 재배면적이 8백70만에이커로 6.8% 떨어졌다. Georgia, Kansas, South Carolina, Tennessee와 Virginia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American-Pima 면화 재배 농민은 17.5% 감소된 14만3천5백에이커에서 재배할 예정이다.

브라질

2008브라질 농약시장, 71억불 달성

브라질 농약산업계에서는 2008년 농약매출이 70억불을 상회하였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브라질 농약산업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매출은 33% 증가한 71억불을 돌파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전에는 69억불로 보고 되었었다. 종자처리제 판매는 보다 시장이 선진화 될수록 이익을 보인다고 브라질 농약산업무역협회 통계정보관이 밝혔다. 작년 순이익은 3억9천불로 4.3% 증가하였다.

브라질 시장에서 콩은 가장 중요한 작물로 32억불의 판매를 기록하여 전체시장의 45%를 차지하였다. 옥수수가 13%, 사탕수수가 10%, 목화가 8%로 순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생장촉진용 종자처리제 시장에 있어서도 콩은 거의 절반(47%)을 점유하였다. 또 다른 주요 작물인 옥수수도 매출의 24%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소맥(8%), 목화와 수도(각각 4%), 두류(2%)가 이었다.